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 투자자 협약식

금융권·지역 기업 참여 오늘 시청서... 7월 합작법인 설립 가시화 광주시·현대차, 우호 투자자 유치 규모 관심...하반기 착공 계획

광주시가 빛그린산단에 완성차공장을 짓고 이를 운영할 '합작법인' 투자자들과 함께 투자협약식을 열기로 하면서 7월 자동차회사 설립에 한 발 더 다가갔다. 투자자 모집이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대투자자 광주시와 현대차그룹이 각각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투자자들을 얼마나 유치했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는 28일 오후 3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투자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앙 부처 인사와 자동차부품회사, 금융권, 지역 기업 등 투자자 30여명이 참석한다고 광주시는 덧붙였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삼일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신설법인의 사업계획 및 투자제안서 작성과 함께 투자자 모집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자기자본금 2300억원의 21%인 483억원, 현대자동차는 19%인 437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1380억원은 투자자를 모집해 마련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광주은행이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밝혔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도 각각 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또 다른 지역 중견건설업체가 10억원대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합작법인에 투자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회사와 지역 기업 등 15개 이상의 기업이 투자자로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총 5754억원의 법인 자본금 중 자기자본금 23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454억원은 재무투자자로서 산업은행과 기타 금융권에서 차입한다. 차입금, 즉 대출받은 3454억원은 회사가 이익을 내기 전까지 자동차공장 부지값을 내고, 공장을 짓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쓰인다.

투자자들은 완성차 공장의 합작법인 주주로서 지분에 따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며, 공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작법인의 조기 출범 및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투자 협약식 이후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주주 간 협약을 통해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의 정관을 확정하고 명칭과 대표자 선정, 투자자들의 출자금 납입, 발기인 총회 등을 거쳐 합작법인이 설립된다. 광주시는 7월 중 합작법인 설립을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공장 착공, 2021년 양산체제로 들어갈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전남 어촌 귀어 도시민 갈수록 늘어

지난해 322가구 449명 최다

전남 어촌으로 귀어하는 도시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한 해 귀어가구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917가구 1285명이 귀어해 전남(906가구 천359명)보다 가구수는 11가구 늘어난 반면 가구원 수는 74명이 줄었다.

하지만 전남으로의 귀어인구는 322가구 449명으로 전년보다 37가구가 늘고 가구원 수도 31명이 증가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전남에 이어 충남 259가구, 전북 99가구, 경남 88가구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가 49%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젊은 귀어인들이 많았다. 또 어업에만 종사하는 전남 귀어인이 234명으로 69.2%를 차지해 제2의 인성

설계로 전남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어 증가 이유를 어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식어장의 74%가 전남에 있는데다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어가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전남지역 1억 원 이상 소득 어가는 2413호에 달했다. 또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직접 전남 우수어촌계와 상담할 수 있는 '전남 귀어 스톨레스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귀어귀촌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전남에 이어 충남 259가구, 전북 99가구, 경남 88가구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가 49%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젊은 귀어인들이 많았다. 또 어업에만 종사하는 전남 귀어인이 234명으로 69.2%를 차지해 제2의 인성

/윤원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롯데슈퍼 양파 사주기 나서

전남도가 롯데슈퍼와 손잡고 전남산 양파 판매 촉진에 나선다.

전남도는 27일 "최근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 업무협약을 한 롯데슈퍼가 양파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농가 돕기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슈퍼는 전남산 양파 300t을 일괄 구매해 오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롯데슈퍼 전국 450여 전 매장에서 양파 판촉행사를 한다. 2.7kg 한 망에 2590원, 12kg 기준 한 망에 5990원에 판매한다.

전남도는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14일까지 4만7000t의 양파를 시장격리 했고, 정부에서 추가 발표한 비축 구매(1만5000t)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및 각급 기관·단체와 함께 양파·마늘 사주기와 소비 촉진운동을 펼치고 있다.



면접 보러 줄 서 있는 구직자들 27일 오후 광주시청 1층 시민실에서 열린 '2019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미니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 줄 서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영록 지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상 추천 홍보

28일부터 싱가포르·베트남 순방

전남도가 40여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돌본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노벨평화상 추천을 위한 해외 홍보활동에 나섰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19 국제간호협회 총회'에 참석,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희생정신을 알리고 노벨평화상 수상의 당위성을 홍보한다. 국제간호협회는 지난 1899년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해 창설된 단체로, 전 세계 135개국에서 1600만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총회 기간 열리는 간호학술대회를 통해 나이팅게일 선서를 몸소 실천

한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업적을 소개하고 노벨평화상 추천을 위해 세계 간호사들의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도 '마리안느-마가렛과 공동으로 두 간호사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가 현재 91만5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상태다.

한편, 김 지사는 간호협회 총회 참석 이후 싱가포르 한인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30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인기업인과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지수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25개 장기미집행 공원 시민 휴식공간으로 지킨다

공원 일몰제 대책 추진 상황 발표...2613억 들여 107만㎡ 매입

내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학교 등)에서 해제되는 광주지역 공원부지 25곳에 대한 광주시의 보호 방안이 정리됐다. 재정부담을 핑계삼아 20년간 미뤄왔던 광주시의 공원부지 지키기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중앙공원 등 9곳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 송정공원 등 15곳은 재정공원 방식으로 공원 부지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한 곳(광목)은 공원시설에서

자동 해제되도록 가만두는 방식이다.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원일몰제 대책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25곳의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면적의 합은 1101만㎡로 국제규모 축구장(7000㎡가량) 1만5850개를 합친 크기다. 모두 국·공유지, 사유지가 혼재돼 있다.

광주시 예산으로 사들이는 '재정공원'은 월산·발산·우산·신촌·학동·방림·봉주·양산

·황룡강·본촌·신용(양산)·영산강·화정·운천·송정공원 등 15곳으로 268만㎡ 규모다. 국유지 40만㎡와 사유지 88만㎡가 포함됐다.

광주시는 오는 2023년까지 2613억원을 투입해 국유지와 사유지(140만㎡) 가운데 107만㎡를 매입,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머지 73만㎡는 공원시설에서 풀어버리기로 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은 마목·수랑·송암·보산·중앙공원1·중앙공원2·중외·일곡·운암산·신용(운암) 등 9곳으로 총 면적은

832만㎡다. 이들 9개 공원은 우선협상자 자격을 따낸 9개 건설사가 각각 공원 부지의 10~23% 범위에서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을 만들어 광주시에 기부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9개 공원에서 건설사들은 모두 152개 아파트 동을 지어 올려 총 1만2607세대를 분양한다는 계획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최저층은 15층, 최고층은 35층으로 예정됐다.

광주시는 도시공원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 9~10월 이들 9개 건설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6월 말 안으로 실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광산구, 산업부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광주 광산구가 27일 산업부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광산구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4개 부처 및 광주시와 '지역이 주도하는 시민 체감형 실의 공기 질 관계기술 개발 및 실증'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성과공진 지원을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역이 수립한 계획을 정부 부처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광산구와 함께 부산, 세종, 강원 강릉 등 전국 11개 지자체가 각각 자신들의 사업계획으로 정부 부처들과 협약

을 체결했다. 광주시 자치구 중에서는 광산구가 유일하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광산구와 협약에 따라 산업부와 과기부, 환경부 등은 행정·정책적 지원을 하며 특히 주관 부처인 산업부는 예산 배정, 사업 점검 및 각 단위 사업별 성과를 지속 관리한다. 각 단위 사업은 ▲실외 공기 질 관계 기술 개발 ▲시민 친화적 시범실증단지 구축 및 운영 ▲공기 산업 중심 중소기업 복합지원센터 구축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도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매년 편성, 지자체와 사업 참여기관 상호 간의 역할분담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 등을 지원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매매대상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